

청년농 나주 정착하면 최대 5억원 저리로 빌려준다

나주시, 올 청년후계농업경영인 65명 선발 파격적 지원책 마련 영농 정착 지원금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심사 없이 농지 임차

나주시가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올해 청년농업인·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은 65명으로 2022년 22명, 2023년 47명보다 대폭 늘렸다.



스마트팜 온실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난 2018년부터 선발해 지원 중인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현재 219명으로 농촌에서 스마트팜 등을 통한 고수익 실현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또 각종 교육·컨설팅 지원 혜택과 함께 최대 5억원의 정착자금에 1.5% 고정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조건은 5년 거주 20년 상환이다.

여기에 영농 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나주시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1대1 멘토링 지원'과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농 정착 시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군수 김한중·가운데)이 지난 11일 지역 외식업체와 함께 상무대 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성군제공>

장성군,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팔 걷었다

지역 외식업체와 상무대 특식 제공

장성군이 군부대에 특식을 제공하는 등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장성군은 지난 11일 지역 외식업체와 함께 상무대 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이날 상무대 장병 1400여명에게 장성 떡갈비 버거, 토마토 파스타, 랍스타 구이, 장성사과즙, 샐러드, 태국기 문양 쿠키 등 장성산 먹거리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였다.

이번 장병특식은 (주)더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단체급식 준비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고,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경

영주는 물론 창업 준비 청년,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장성군은 앞선 9월,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주)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특화음식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상생급식' 품평회도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병특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식업 경영자와 청년들이 소중한 현장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며 "장성 먹거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전용 상자 제작

장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용 상자(사진)를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장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색다른 홍보 방법을 찾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상의하고, 전문가의 디자인을 거쳐 총 3가지 규격으로 상자를 제작했다.

상자는 파란색 바탕에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글귀와 장흥군, 공동 브랜드 '산들해랑'의 로고가 담겨 있다.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은 전용 상자에 담겨 전국 각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한편 장흥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유튜브 영상 공모전도 벌이고 있다.

총 6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부자가 만족하는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지역 홍보를 더해 최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병영시장 주차장 사업비 21억원 확보

연내 준공 목표 대규모 주차장 조성

강진 병영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21억원이 확보되면서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강진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비는 병영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다. 병영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어 대표 행사인 '불금불파' 기간이면 체증이 발생해왔다. 강진군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병영시장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다.

병영시장 인근 반경 1km 이내에는 전라병영성, 한골목, 하멜기념관 등 풍부한 역사·자연·문화 자

산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병영시장을 중심으로 돼지 불고기 특화 거리가 조성돼왔다.

인구 1500여 명인 병영면은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41억원을 확보해 주거 환경정비와 생활 기반시설(SOC) 개선을 추진해왔다. 해마다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강진군이 병영시장 일원에서 지난해부터 선보인 '불금불파'는 올해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3000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았고, 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반값 가족 관광의 해'의 본격적인 운영에 맞춰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을 다양화할 전략이다.

'불금불파'의 핵심인 병영돼지불고기를 중심으

로, 분식과 음식 매대 4곳을 추가한다. 새롭게 풍차 바비큐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돋우고, 청년 요리사 존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 세대의 입맛을 저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병영장터, 문화예술마켓, 친환경 자전거 여행, 추억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 장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불금불파 시즌2'는 오는 19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한다. 7월과 8월 휴식기에는 열리지 않는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인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금불파 행사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와 관광, 반값 가족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시장 조감도.

담양시장 3층 규모 신축 26일 개장

점포 입점 계약·시장상인회 구성

담양군이 담양시장 건물 준공과 함께 5일 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변모하는 담양시장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담양시장은 오는 26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담빛농업관 2층에서 입점상인 36명의 입점 계약을 진행하고 시장상인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했다.

또 원활한 개장 준비와 입점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맞춤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입점 상인들도 사업자등록과 함께 분야별 특색있는 품목으로 내부 시설을 꾸미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담양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면적 6213㎡ 규모로 지하 주차장 64면, 1층 판매장 43개, 2층 식당 7개, 3층 카페 1개 등을 갖추고 지난달 말 준공했다.

군은 '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주제로 개장날인 26일 오후 2시 개장 기념식에 이어 27일까지 2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장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그동안 5일 장으로 운영된 담양시장이 새롭게 상설시장으로 개장하게 됐다"며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를 갖춘 담양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여성 1인 52가구에 방법 꾸러미 지급

안심홈 3종 방법세트 지원사업

화순군이 여성 1인 가구 52가구에 방법 꾸러미를 지원한다.

화순군의 '안심홈 3종 방법세트 지원사업'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는 ▲스마트폰과 연계해 방문자를 핸드폰으로 확인, 움직임 감지 및 자동 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초인종' ▲외부에서 문(창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창문틀에 설치하여 창문이 일정 이상 열리지 않게 보호해 주는 '창문 잠금장

치'로 구성된다.

화순군에 사는 여성 중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1인 점포 운영자라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jys5686@korea.kr)이나 군청, 등기우편으로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가정활력과(061-379-3552)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시 시민 평생교육 '나주애 배움바우처' 큰 호응

3천여명 1인당 15만원 지원

나주시가 전남 최초로 시행 중인 '나주애 배움바우처'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나주애 배움바우처' 사업에 7225명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검증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총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2500명 선발 시 2756명이 신청해 1.1: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올해는 2.4: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2년째 시행하고 있는 '나주애 배움바우처'는 19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연 1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나주애 배움바우처'는 전용카드(광주은행) 형태로 지원되며 공예, 운동, 음악, 자격증 과정 등 지역 내 172개 등록기관 371개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참여 대상자는 기존 카드에 학습비가 충전되며, 신규 선정자는 5월 말까지 광주은행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10월말까지 카드를 사용(결제)해야 한다. 미 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나주애 배움바우처 수업 현장.

(나주시 제공)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나주애 배움바우처' 정책을 시행중이다"며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학습이 일상

이 되는 '성인 교육의 1번지' 나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원길 기자 ycon@kwangju.co.kr